

발간사



지난 2009년은 국가 전체적으로 국격(國格)을 한 단계 높이고 선진일류국가에 한 걸음 다가서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원칙있는 남북관계의 초석을 마련한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작년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新평화구상』을 제시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재래식무기를 감축하고 북한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북핵문제의 일괄타결 방안으로 『그랜드 바겐』을 제안함으로써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주도적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도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하나원 개원 10주년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개편을 통해 통일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통일 미래상 확립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갖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변화된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성숙한 국민의식과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북한의 대남비난과 강경 도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로켓 발사와 제

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정부는 엄중한 북핵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순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내실있는 남북관계를 위해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회와 도전요인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올 해는 6.25전쟁 발발 60주년이자 독일통일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튼튼한 안보 속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실천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개혁·개방에 나서야 합니다. 길은 있습니다. 북한이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하고 변화에 나서도록 우리는 크게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남북관계의 현 주소와 한반도의 냉혹한 안보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대결적 태도와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을 붙잡고 있음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의 시급성을 절감케 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와 도전을 헤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新세계질서 재편을 주도해 나갈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의 실현은 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이며,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현실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는 원칙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공감대를 굳건히 다지면서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2010 통일백서』가 남북관계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0년 9월

통일부장관 **현 인택**